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의 현단계

80년대 들어 크게 각광……표현기법 다양화로 수준 높아져

일러스트레이션이 우리 출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다.

최근에는 저작권개념의 확립으로

창작 일러스트레이션의 수요가 급증하고,

출판에도 시각디자인의 원리가

광범하게 적용됨으로써 일러스트레이션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삽화풍을 벗어나지

못했던 출판일러스트레이션의 수준도

다양한 기법과 표현매체 개발을 통해

점차 제고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아트'로 주목받아

문자의 시대가 영상의 시대로, 혹은 읽는 책의 문화가 보는 책의 문화로 진행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아직 일반에겐 기존의 '컷'이나 '삽화'에 비해 덜 친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러스트가 갖는 '커뮤니케이션 아트'로서의 가능성은 특히 출판의 영역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종래 언어나 문장에 대해 예측적 입장을 취했던 일러스트가 최근에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시각언어로 해석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같은 현상은 이른바 '시각디자인'의 개념이 출판계에 도입된 이래, 출판에서의 일러스트의 위치가 점차 확대, 강화돼 온 것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으로서, 이제 일러스트는 언어의 도움 없이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매력적인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러스트의 가능성과 매력이 우리 출판을 통해 언제나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보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출판계가 일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 그동안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레이터가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고, 따라서 우리 출판일러스트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한눈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일선에서 활약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몇가지 범주로 '그룹

핑'하는 일 정도는 가능하며, 그를 통해 우리 출판일러스트의 현단계를 대략적이거나 깊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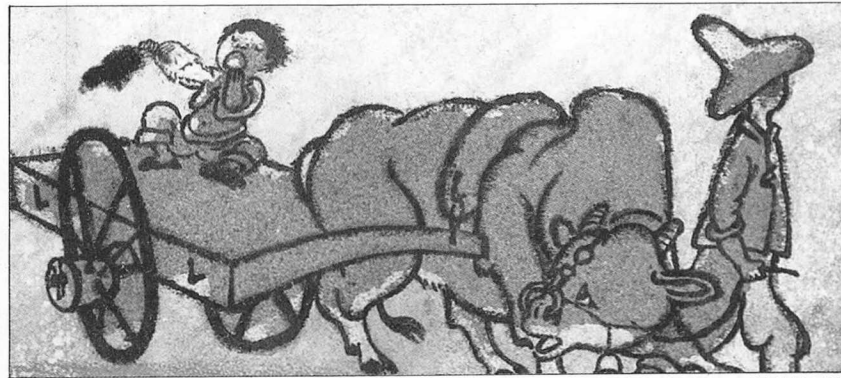
출판환경의 변화가 활성화 자극

현재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한국무지개회'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선배계' 일러스트레이터들이다. 위승희, 최준식, 김정, 이우경, 김박, 김희진씨 등 대개 40대 중반 이후의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며, 원래 순수회화를 전공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드로잉의 기초가 착실한 반면, 일러스트가 갖는 디자인적 특성은 비교적 덜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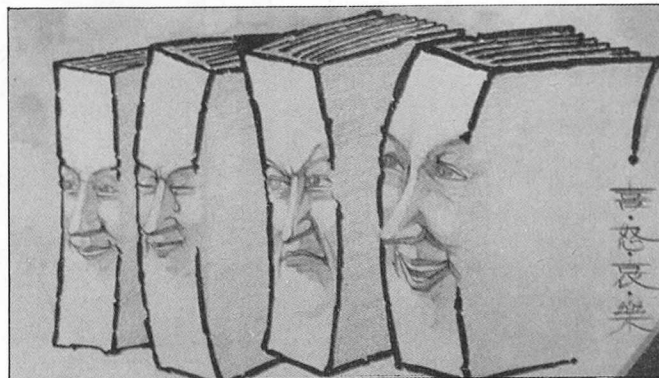
둘째 그룹은 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광영권, 노희성, 이상민, 김영미, 이해리, 이해경, 이성표, 정덕주, 차정인, 최정은씨 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앞의 무지개회그룹이 순수회화쪽에서 일러스트로 접근하고 있는 데 비해, 대부분 대학에서 디자인 코스를 전공해 일러스트에 대한 장르의식이 비교적 투철한 편이다. 기법적으로도 '동심천사주의'적인 삽화풍에서 벗어나, 민화나 카툰, 타이포그래피적 방법을 원용한다든가, 혹은 지점토나 바가지인형, 한지를 활용하는 등 일러스트의 표현영역을 다양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세째 그룹은 첫째와 둘째 그룹의 중간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룹으로 전후연, 윤학중, 이원복, 허상희, 유재수, 전갑배, 한호림, 강우현, 서기훈씨 등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작가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둘째 그룹처럼 대학에서 정식으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긴 했으나, 졸업 후의 당시 사정이 일러스트에 대한 수요가 없어 일종의 '휴업'상태에 있다가 최근들어 각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재개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활동영역도 출판일러스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각디자인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한편, 이들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주요 활동무대로서 일련의 전집물 아동도서를 비롯한 일반잡지 등의 출판환경 변화는 일러스트의 수요 촉진과 수준 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아동도서의 경우, 어문각의 '픽처



김박씨의 동화일러스트레이션 '초가을'



김양현씨의 '책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북스'시리즈(1981) 등에서 비롯된 '일러스트 저작권' 개념이 우리 출판일러스트의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로얄티 지급 등의 문제로 외국 일러스트의 복제출판이 점차 어려워짐으로써 창작 일러스트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국내 일러스트의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웅진출판사의 「어린이마을」 시리즈(1984), 일신각의 「뉴 어린이한국전래 동화」시리즈(1986), 대교문화의 「동시나라」 「동화선물」 시리즈(1987) 등은 우리나라 출판일러스트를 활성화시킨 업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대거 참여한 「어린이마을」은 '우리 그림'의 가능성을 보인 점, 그리고 일러스트에 대한 적극적 수요창출이란 점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잡지의 경우에서도, 80년대 초반 「한국인」 「마당」 「벗」 등의 월간지가 아트디렉터 시스템을 도입, 편집디자인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일러스트를 요구하면서 종래 기사의 보조수단으로 존재하던 일러스트의 입지를 넓혀 주었다. 더불어, 일러스트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이 사진의 한계를 감싸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일러스트는 사진의 대체수단으로도 적극 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현기법의 다양한 개발 필요해

그러나, 이와같이 일러스트를 위한 출판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여전히 상존한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가 한사람의 직업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직은 드물다. 출판계에서조차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명칭 아래 사원을 모집한 것은 1985년 동서문화사의 경우가 처음이자 유일할 정도다. 또, '프리' 혹은 '프로'로 뛰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숫적으로 제한돼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입문하는 어떤 공적인 절차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일러스트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기보다는, 공급이 수요자의 주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을 보인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주 갖는 개인전이나 그룹전은 이같은 사정을 가장 잘 드러낸다. 즉, 서울대대 윤학중교수의 지적대로 이들 전시회는 '젊은 작가들의 자기데모스트레이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전시회라는 수단을 빌어 공개함으로써 출판사 등 수요자의 주문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일러스트의 공급과 수요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한편, 특히 아동도서의 경우, 표현기법과



이원복씨의 카툰 일러스트레이션 '유럽에 살다'



유정진씨의 제4회 노마콩쿠르 수상작 '출추는 호랑이'

발상, 그리고 고증의 문제에까지 걸쳐 일러스트 자체에 내재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아동도서 일러스트의 표현기법을 만화적 스타일, 삽화적 스타일, 그래픽 스타일로 3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유재수씨는 보다 다양한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순수 회화쪽의 미술적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한편, 현재 종이에 먹, 수채, 포스터칼라, 파스텔 정도로 국한돼 있는 표현매체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유재수씨의 말이다.

또한, 발상의 차원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일러스트=곱고 화사한 그림'식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고, 고증의 문제도 리얼리티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앞서 든 일군의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에 의해 다양한 기법적 실험과 표현매체의 개발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전갑배, 한호림씨 등에 의해 한국적 해학을 담은 일러스트가 개발되는 등 점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특히, 아직 숫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강우현, 유재수, 유정진씨 등이 일본의 '노마 콩쿠르' 등 국제적 규모의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에 참석,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은 크게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출판일러스트의 활성화와 수준 제고를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는 에디터와 아트디렉터,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간의 관계정립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중에서도 에디터는 일러스트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개

성을 파악한 연후에 무엇을 그려야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에디터와 아트디렉터,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분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잡음'을 중재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말하자면, 의뢰자의 의도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느냐의 여부가 좋은 일러스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우리 출판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긴 하지만,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일러스트레이터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작에 임하게 한다든가, 이른바 畫料의 현실화 등 제반 여건의 개선 또한 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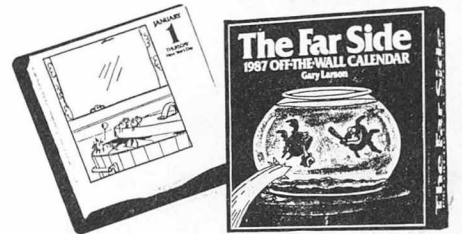
그러나, 어쨌든 최근 들어 일러스트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크게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각 대학의 생활미술 및 산업미술과 등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출판계에서도 나름대로 '보는 책'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러스트의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런 일러스트의 활성화 조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냐는 점이다. 문자와 일러스트의 異化受精이 가장 바람직한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출판일러스트에 대한 보다 진지한 탐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일러스트는 고도로 함축된 내용을 충격과 감동을 동반하여 독자대중에게 순간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일 수 있다. —강철주 기자

미국 만화 「The Far Side」

괴상한 유머의 봄

김호근
프리 에디터



개리 라슨(Garry Larson)의 일련의 만화 작품집이 87년 미국에서 거의 한해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다. 그의 작품집은 6백만권 이상이 팔렸고, 그의 그림은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이미 7백여개의 일간지에 게재되고 있었으므로 6천만명이 그의 그림을 본 셈이다.

미국에선 슈퍼맨 만화식의 DC 코믹스 'SF'나 '환타지'를 내용으로 하는 얇은 만화책자들이 많이 있고, 신문의 코믹 스트립스, 전문 만화지인 「MAD」나 「뉴욕커」에 게재되는 고급만화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만화기법은 만화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미국 만화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만화붐을 이루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만화 소비가 대단한 일본도 만화의 다양한 형태면에서는 미국과 구별된다.

등장 어린이를 통해 '비유적인 지혜'를 표현하는 찰스 슈츠의 「피너츠」(Peanuts), 개리 트뤼도의 「사타니아어 둔스버리」 고양이 주인공인 잭 머버스의 「가필드」(Garfield)는 이제 미국의 인기인물 중의 하나가 되었고, 사람들은 도처에 있는 그러한 그림들에 상당히 익숙하다.

이들 유명한 주인공들은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에 코믹스트립으로 연재되고 있는데, 특히 개리 라슨의 그림은 스타일이나 표현이 대중적이지 못함에도 단기간에 많은 인기를 얻었다.

보통 코믹스트립이 네컷 또는 여러 컷인데 비해, 라슨의 코믹스트립은 단컷이고 등장인물이 다양하며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리기보다는 우스운 상황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의 그림에는 동물(뱀, 오리, 물고기, 소, 곤충, 공룡)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동물같은 사람(원시인, 식인, 멍청한 사람), 괴물들이 그려지고 있다. 또한 만화의 대사는 현학적이어서 일반코믹스트립처럼 감각적이지 않은데도 의외로 기지가 번득여 인기가 높다. 괴상한 모습을 담은 회화, 초현실적이고 병적인 세계, 먹이사슬로 얽힌 생물들을 다루는 그의 그림에는 전체적으로 인간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가 있다.



개리 라슨은 워싱턴 주립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였고 음악도 좋아해 한때는 작은 밴드에서 재즈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1978년 「시애틀타임즈」에 처음으로 그림을 선보인 후 이듬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계약을 맺어 5년후에는 100여개의 신문에 그의 그림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Universal Press Syndicate와 계약을 맺는 등 단기간에 그는 미국 최고의 인기있는 만화가가 되었다.

'폭력에 대한 유머' '블랙 카툰' 등으로 불리는 그의 작품은 「뉴욕커」의 카툰리스트인 체스 아담스나 게한 윌슨이 오래전부터 그려온 소재나 기법과 유사한 태가 많다. 이들은 모두 단컷에 '괴상한(bizarre) 유머'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중 라슨의 그림이 다양한 등장물과 아이디어 때문에 보다 더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등장물은 현대문명의 모습과 상반되는 듯하며 비실재적인 것이 정상처럼 보이고, 그런 일그러진 모습이 현대인의 심성에 웃음을 제공한다.

"다섯살인 내 아이가 당신의 그림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라는 한 독자의 물음에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고 반문했다고 한다. 올해 38세가 된 라슨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으며, 뱀을 비롯한 동물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시각적 표현방법, 만화의 세계적 붐 속에서 라슨의 새로운 현상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